

국어사전과 방언의 정보화*

이 태 영 (전북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4. 말뭉치를 이용한 ‘궁글다’의 해석과 사전 등재 |
| 2. 국어사전의 방언 처리 현황 | 5. 결론 |
| 3. 방언 해설을 위한 말뭉치 구축과 활용 | |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각종 국어사전에서 방언을 표제어로 다루는 방법과 문제점을 살핀다. 사전의 방언 해설을 위해 말뭉치를 통한 연구가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국어사전은 방언 올림말(표제어)에 대한 해설이 아주 빈약하다. 대체로 방언 표제어에 대하여 표준어를 상대적인 말로 제시하고 아주 일부는 뜻풀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적이고 특징적인 방언 표제어에 대하여 ‘대응 표준어, 품사, 뜻풀이, 관련지역, 방언형 및 검색어, 예문, 종합설명’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현행 사전에서 방언은 다음과 같이 다루어지고 있다.

방언 올림말은 표준어 올림말이 가지는 각종 사전적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다. 방언 올림말의 지역적 편차가 너무 심하게 나타난다. 방언 올림말의 품사적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방언 올림말에 대하여 제시되는 용례의

* 이 논문은 2015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자료가 균형적이지 못하다.

여기서는 전라방언인 ‘궁글다’(똥글다)의 예를 들어 말뭉치 구축과 활용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로 한다.

연구를 위해서 국어사 말뭉치, 방언사 말뭉치, 구비문학 말뭉치, 문학 작품 말뭉치, 방언 어휘 말뭉치, 방언 검색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였다. 사전의 방언 표제항에 대하여 가능한 말뭉치를 검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정보를 자세히 올리는 방안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국어사전, 방언, 정보화, 말뭉치, 방언 표제어, 궁글다.

1. 서론

한국의 어문정책은 표준어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표준어는 사전에서 각종 정보를 다양하게 제시하여 표준어로서 대우를 받아왔다. 그러나 방언은 방언이 가지는 각종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고 표준어와 대응형태만을 제시하거나 대응형태가 없는 경우 간략한 뜻만을 제시하여 상대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1988년 제정한 ‘표준어 규정’에서 ‘단수 표준어’와 더불어 ‘복수 표준어’ 개념이 도입되면서 여러 지역의 방언이 ‘복수 표준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후 정부의 언어정책이 방언을 포함하는 언어정책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언어를 문화로 보려는 시민의식이 대두되면서 정부의 언어정책의 방향이 바뀐 것이다. 2009년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편찬이 시작되면서 100만 개의 어휘 중에 방언이 약 9만 개를 차지한다. 이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전 편찬에 방언을 대대적으로 올리는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말큰사전』이나 『표준국어대사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지식대사전』도 방언 올림말을 표준어와 대응하여 풀이하는 방식으로 올릴 예정이어서 최선의 방언 올림말 해설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방언 말뭉치가 다양하게 구축되지 않고 있고, 말뭉치의 활용과 검색이 매우 빈약한 데서 오는 결과이기도 하다.

방언의 정보화는 우선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방언 자료를 말뭉치로 구축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구축된 말뭉치를 검색하여 연구하는 일이다. 현재 구체적으로 방언 자료가 말뭉치로 구축되어 활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방언은 표준어와는 달리 활용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용역 사업이 활발하지 못하고, 개인 연구자에 의해서 사적으로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개적인 말뭉치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1)

이 연구에서는 각종 국어사전에서 방언을 표제어로 다루는 방법과 문제점을 살피고, 사전의 방언 해설을 위해 말뭉치를 통한 연구가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국어사전의 방언 처리 현황

현행 국어사전은 방언 올림말(표제어)에 대한 해설이 아주 빈약하다. 이는 그간 지역의 언어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한 탓이고, 지역어 정책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국어사전을 만들 때 참고하는 것은 지역의 방언사전과 연

1) 방언 말뭉치 가운데 국가에서 사업으로 진행한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0-1992), 『한국구비문학대계』 85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1995), 『한국방언자료집』 1-9.

국립국어원(2005-2012), 『지역어 조사 보고서』 음성전사파일.

국립국어원(1998-2007), 『21세기 세종계획 한민족언어정보화 통합 검색 프로그램』 방언 말뭉치.

국립국어원(2007-2012), 『민족생활어 조사 보고서』.

구본문이 대부분이어서 방언사전이 없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언어를 실을 수가 없었다.

사전을 편찬하면서 문학 작품에서 어휘와 용례를 뽑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그 어휘가 해당 지역의 방언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쓰이는 어휘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기준이 없이 올림말을 선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문학작품을 검토해 보면, 전국적인 분포를 가지고 쓰이는 많은 어휘를 표준어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²⁾ 이는 전적으로 국어 어휘의 연구가 부족한 탓이다.

2.1. 『표준국어대사전』의 방언 처리

‘가깝다’의 방언 올림말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방언 표제어에 대하여 표준어를 상대적인 말로 제시하고 괄호 안에 사용 지역을 제시한 해설이다. 이러한 방언 올림말에 대한 사전의 정보는 방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해설은 방언 올림말에 대하여 뜻풀이를 하고 괄호 안에 사용지역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표준어로 상대되는 말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언 올림말에 대하여 뜻풀이를 제시한 것인데 이는 대응하는 표준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해설 방법이다.³⁾

가깝다 『형』 『방』 ‘가볍다’의 방언(평북, 함남). <표준국어대사전>⁴⁾

- 2) 문학작품에 나타난 전국적인 분포를 보면 ‘거진’을 단순히 방언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거진’의 쓰임이 전라도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쓰였던 형태이기 때문이다. 1910년대와 20년대에는 ‘거진’이 아주 많이 사용되었다. 『조선말대사전』과 『우리말큰사전』에서는 ‘거진’을 등재하고 있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등재하지 않고 ‘거의’를 표준어로 삼고 있다.(이태영, 2008:324)
- 3)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방언을 소방언권으로 제시한 올림말의 개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방언권으로 올린 말은 제외한다.

제주	경남	강원	경북	전남	경기	충남	충북	전북	합계
4,039	2,890	2,117	1,786	1,498	831	640	421	202	14,424

가꼬다 「동」 『방』 「1」 동정을 살피다(제주). 「2」 소나 말을 들에 놓아
살피면서 먹이다(제주). <표준 국어 대사전>

2.2. 최근 사전의 방언 처리 계획

2006년도부터 편찬하기 시작한 『겨레말큰사전』은 남쪽과 북쪽의 말을 통합하는 사전의 성격을 띤다. 약 30만 개의 어휘를 실을 예정으로 작업하고 있다. 이 사전의 방언 올림말에는 ‘발음정보, 품사정보, 뜻풀이정보, 예문, 형태적 정보’ 등이 제시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보다 진일보한 방언 올림말의 해설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아까막새 [아까막새]

[명] 아까[명]. (전라) | {아까막새는} 바쁜 소리 혼자 다허등마는, 왜 가는 사람을 붙들고 찢드기맹이로 놓들 안히여? <최명희: 혼불>

[부] 아까[부]. (전라) | 우리 준이 머리가 펄펄 끊는단 말이여. {아까막새} 폴쭉폴쭉 뛰고 놀던 놈이…. <최병탁: 고폘이 산조>

[아까+막+새]

2010년에 편찬을 시작한 『한국어 지식 대사전』은 100만 개의 어휘를 실을 예정으로 작업하고 있다. 이 사전에서 주목되는 것은 약 9만 개의 방언 올림말을 실을 예정이다. 방언 올림말의 해설은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의 방언 올림말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어 지식 대사전』에서 방언 올림말을 해설하는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언 표제어에 기본 의미가 같은 표준어가 대응하는 경우에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를 이용하여 풀이한다.(A형)

둘째, 방언 표제어에 기본 의미가 같은 표준어가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제어의 종류에 맞게 적절한 형식의 뜻풀이를 제시하되 그 형식은 『표준국

4) 다른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다.

가깝다(그) (여벗) -> 가뻬다. (평북. 함남). <우리말 큰사전>

가깝다 「형」 ⇒ 가뻬다(함남.평북 방언). <금성 국어 대사전>

어대사전』에 준한다.(B형)

셋째, A형의 일부, B형 모두(가능한 한 모두)에 대해 적절한 용례를 제시 하되, 되도록 표준어와 차이가 많은 방언 지역의 방언형을 선택하고 용례를 제시한다.

2.3. <문학작품에 나타난 방언 검색 프로그램>의 방언 처리

2004년에서 2007년까지 국립국어원에서 수행한 <문학작품에 나타난 방언 검색 프로그램>은 방언 해설을 시도하고 있다.⁵⁾ 방언 표제어에 대하여 ‘대응 표준어, 품사, 뜻풀이, 관련지역, 방언형 및 검색어, 예문, 종합설명’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응 표준어가 있을 경우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해당 표준어를 제시하고, 그 표준어의 뜻풀이를 활용하고 있으나, 대응 표준어가 없을 경우에는 방언 올림말의 뜻풀이를 문학작품의 용례를 통하여 시도하고 있다. 또한 대방언권에서 사용하는 방언형을 여러 개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 있고 접속방언의 방언형을 제시하고 있다. 종합설명에서는 뜻풀이에서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언어학적 설명은 물론, 문화적인 설명과 국어사적인 설명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4. 사전, 프로그램에서 방언 처리의 문제점

현행 국어사전과 앞으로 편찬될 국어사전에서 방언 올림말을 제시할 때

5) 국립국어원에서 수행한 『문학작품에 사용된 방언 검색 프로그램』은 ‘문학 속의 방언 총서 1-5’로 발간되었다.

이상규·신승용(2010), 『문학 속의 경상방언』, 글누림출판사.

이태영(2010), 『문학 속의 전라방언』, 글누림출판사.

박경래(2010), 『문학 속의 충청방언』, 글누림출판사.

강영봉·김동윤·김순자(2010), 『문학 속의 제주방언』, 글누림출판사.

곽충구·박진혁(2010), 『문학 속의 이북방언』, 글누림출판사.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방언 올림말은 표준어 올림말이 가지는 각종 사전적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언 올림말은 다양한 사전적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방언에 대한 사전편찬자들의 고착된 인식 때문이다. 국어사전이 주로 표준어 사용자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면서 상대적으로 방언은 표준어의 보조적인 자료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어는 방언으로 이루어져 있고, 표준어 역시 중부방언에서 출발한다면 한국어사전이라 하면 반드시 기초적이고 특징적인 방언 어휘들을 표준어와 동등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초적이고 특징적인 방언 올림말도 표준어의 사전적 정보처럼 해설해야 한다. 그래야만 앞으로 사전을 편찬할 때 어휘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국어사전이 갖고 있는 방언 올림말의 사전적 정보는 ‘대응표준어, 뜻풀이’가 대부분이고, 사용지역도 매우 한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편찬될 사전에 있어서도 ‘대응표준어, 뜻풀이’ 이외에 ‘발음정보, 용례, 형태정보’가 대부분이어서 국어사전 편찬의 인식에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2) 방언 올림말의 지역적 편차가 너무 심하게 나타난다.

이미 앞의 각주 4)에서 도표로 제시한 바와 같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방언 올림말의 지역적 편차는 매우 두드러진다. 이는 의도된 것이 아니라 방언사전이 편찬된 것을 참고하였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또한 구체적인 조사가 없이 예를 들면 소방언권인 ‘전북’과 ‘전남’을 대방언권인 ‘전라’로 처리하여 빚어진 현상이기도 하다. 다양한 지역의 방언이 나오는 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려는 태도를 갖지 못한 결과라 생각한다.

3) 방언 올림말의 품사적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방언 연구가 주로 음운론적 연구에서 시작된 관계로 명사에 치중되어 조

사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전 편찬에도 적용되어 명사가 가장 많고, 동사와 형용사, 부사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방언을 통하여 한국어 형용사의 접미사를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표준어 산정과 방언 차이를 드러내는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품사적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⁶⁾ 그러기 위해서는 방언 말뭉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이를 가지고 검색을 해야만 품사적 균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방언 올림말에 대하여 제시되는 용례의 자료가 균형적이지 못하다.

현행 국어사전에서 방언 올림말에 대해 제시하는 용례는 문학작품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 이유는 문학작품의 용례는 잘 가다듬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방언 자료(국어사 자료, 구비문학 자료, 문학 자료 등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쪽에 치중하여 용례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방언 말뭉치가 구축되어 활용해야 할 것이다.

2.5. 국어사전의 방언 올림말 해설의 모델

방언이나 국어사의 어휘를 표준어와 대등하게 한국어의 어휘로 생각하여 국어사전을 편찬한다고 가정하고, 방언 올림말을 해설하는 하나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올림말(표제어) 선정

기초 어휘 중에서 형태론적 이형태를 신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많은 음운론적 이형태 중에서 대표형을 신는다. 지역의 특징을 드러내는 어휘를 선별한다. 이미 ‘한국 방언 검색 프로그램’에서 방언의 기초 어휘를 조사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할 수 있다.

2) 발음 정보

방언의 경우, 같은 표기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6) 필자가 참여한 『문학 속의 진라방언』의 경우에는 동사와 형용사의 비율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이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발음 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지역어조사에서 채록한 어휘에 대하여 실제 발음을 제시하고 있다.

3) 품사 정보

방언의 품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시한다. 방언의 경우, 대응 표준어와 뜻과 품사가 다를 경우가 있다.

4) 뜻풀이 정보

방언 표제어를 일방적으로 표준어와 대응시키는 것은 옳은 방안이 아니다. 방언이 표준어와 뜻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고, 미묘한 어감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으며, 대응 표준어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방언의 관점에서 뜻풀이를 생각하고 전체 한국어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많은 용례를 통하여 뜻풀이를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5) 용례 정보

용례가 없는 올림말은 어떠한 정보도 신뢰하기 어렵다. 독자들이 용례를 통하여 뜻풀이의 정확도를 확인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뭉치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다양한 용례 정보는 물론, 정확한 뜻풀이 정보도 제공하기 어렵다.

6) 대응 표준어

해당하는 대응 표준어를 찾아 제시한다. 하나를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해당하는 어휘를 모두 제시한다. 또한 활용이나 곡용의 제약과 연어 관계의 제약에 의해서 나타나는 차이를 제시한다.⁷⁾

7) 국어사 정보

어휘의 국어사 정보는 시대별 형태변화를 제시한다. 전자사전일 경우에는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어휘 역사 검색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제시한다.⁸⁾

7) ‘활용이나 곡용의 제약과 연어 관계의 제약에 의해서 나타나는 차이’에 대한 설명은 익명의 심사위원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제안을 해주신 심사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8) 국어사 정보를 위해서는 사전류로 『이조어사전』, 『17세기국어사전』, 『중조대사전』, 『필사본 고어대사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국어사 문헌 말뭉치로는 21세기 세종계획에서 입력한 ‘국어사통합말뭉치’를 이용할 수 있다.

8) 사용 지역

소방언권(전남, 전북 등)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경우에 따라서 대방언권(전라, 충청, 경상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접촉방언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9) 관련 형태

일차적으로 품사가 같은 것을 제시하고 품사가 다르더라도 관련된 형태를 모두 제시하여 참고하게 한다. 방언에서 사용하는 유의어와 반의어를 제시한다.

10) 보충 설명

부족한 뜻풀이나 참고 사항은 보충 설명에서 보충한다. 특히 지역과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설명이 꼭 필요할 것이다.⁹⁾

방언지도 검색, 어휘역사 검색, 방언 어휘 검색, 지역어조사·민족생활어조사(국립국어원) 등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하이퍼링크로 연결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방언 말뭉치를 구축하여 이를 잘 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해설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국어 정보학적 관점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문학작품에 사용된 방언 검색프로그램’에서 이미 작성된 전라방언 어휘 ‘병글다’를 예로 들어 사전의 올림말 구축을 시도하여 재배열하면 다음과 같다.(이태영, 2010:330 참조)

- 1) 올림말(표제어) : 병글다
- 2) 발음 : [병글어]
- 3) 품사 : 동사

9) ‘부추’는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전라남북도에서는 ‘솔’, 충남에서는 ‘졸’, 경북에서는 ‘정구지’, 경남에서는 ‘정구지’, ‘소풀, 소불’, 제주도에서는 ‘세우리, 쉼우리’라 부른다. 평안도에서는 ‘푸초’, 함경도에서는 ‘불기, 셋꾸레, 엄주, 엄지’로 부른다. ‘솔’과 ‘정구지’도 쓰고 있다. 중국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들도 조상들의 출신지에 따라서 ‘부추, 솔, 엄지, 정구지, 졸과, 푸초, 서쿨레이’ 등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부추’의 이름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4) 뜻풀이 : ① 갈라져서 사이가 뜨다. ② 식물의 꽃이 약간 피어서 열리다.
③ 입을 약간 벌리다.
- 5) 용례 :
나의 손때를/ 누군가/ 소리 없이/ 씻어 해우고/ 그 씻긴 자리/ 새로/
병그는/ 새벽/ 지셀 녀/난초 한 송이. <서정주, 方漢岩禪師>
문은 닫기였으나 더열 닫았음인지 이가 맞지 않는지 방긋이 조금 틈이
병그러졌다. <채만식, 아름다운새벽, 1987, 121>
그때는 막 봄이 부르익으려 할 때여서 주막 옆구리의 술발 언저리에
저절로 병그는 각시복숭아꽃 숨결 터지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었다.
<최명희, 혼불, 1996, 3, 292>
- 6) 대응 표준어 : 벌다, 벌어지다
- 7) 국어사 정보 : 『17세기국어사전』에는 ‘병을다’가 ‘사이가 벌어지다.’의
뜻으로 쓰고 있다. 따라서 ‘병글다’는 ‘병을다’보다 역사적으로 더 오래된
어휘로 보인다.
- 8) 사용 지역 : 전라도, 전국
- 9) 관련 형태 : 병글어지다
- 10) 보충 설명 :
전라방언의 어휘 ‘병글다’는 시와 소설에서 아주 많이 사용된 어휘
이다. 표준어로는 ‘벌다, 벌어지다’와 대응되는데 그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 ‘병글다’의 의미는 예문을 통해서 보면 활짝 피는 것이 아니고
다소곳이 약간 꽃봉오리가 벌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병글다’는
‘틈이 약간 열리다, 꽃봉오리가 약간 벌어지다.’의 뜻을 가진다.

3. 방언 해설을 위한 말뭉치 구축과 활용

국어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 방언의 말뭉치 구축은 매우 필요하다. 다양
한 분야에서 용례를 추출하고 그 용례를 통하여 뜻풀이를 비롯한 여러 정보
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방언인 ‘궁글다’(뉘글다)의 예를 들어
말뭉치 구축과 활용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로 한다.¹⁰⁾

10)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 있는 ‘궁글다’는 형용사로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할 물
건이 들떠서 속이 비다.’는 뜻이다. ‘궁글다01’는 형용사로 ‘그릇 따위가 겉으로

땡굴다 [땡굴어, 땡구니, 땡구오] 「동」 & 「1」 【…에서】 【…을】 누워서
이리저리 구르다. <조선말 대사전>

궁굴다 (궁구니, 궁구오) 「동」(자) = 땡굴다.

궁굴다02 「동」 『방』 「1」 땡굴다 의 방언(경상). 「2」 구르다01 의 방언
(전남). <표준 국어 대사전>

궁굴리다02 [궁굴리어[---어/---여](궁굴려), 궁굴리니] 「동」 【…을】
어떤 사물을 이리저리 굴리다. 『눈알을 {궁굴리다}/강아지는 방 안에
굴러다니던 조그만 공을 {궁굴리며} 뛰어다녔다.』 <표준 국어 대사전>

국어사전에서 ‘궁굴리다’는 올림말로 올리고, ‘궁굴다(땡굴다의 의미)’는
올림말에서 제외하고 있다. ‘궁굴리다’가 ‘궁굴다’의 사동형이라면 ‘궁굴다’가
올림말로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
‘땡굴다’의 사동형으로 ‘궁굴리다’를 잡고 있다.

3.1. 방언사 말뭉치

그간 소개된 방언사 문헌 자료, 문학 자료, 완판본 한글고전소설, 판소리
사설 등은 방언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말뭉치이다.(이태영, 2011,
87-90)

1) 한글고전소설

1820년대에서 1930년대의 전라방언을 확인할 수 있는 완판본 한글고전소
설 말뭉치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한글고전소설과 1910년대부터 1950년
대의 근대소설을 검토하여 ‘궁굴다’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轉 궁글 전 <杏谷本 千字文15ㄴ>

궁글며 <완판조웅전,50ㄴ>, <완판장풍운전,10ㄱ>, <완판장풍운전,29ㄱ>,
<완판조웅전이,17ㄴ>, <완판유충열전,83ㄱ>

특기란 놈 거동 보소 씨굴씨굴 궁글더니 精神찰여 호난 말이 <1887,

보기보다 속이 너르다.’는 뜻이다.

별토가(가람본),23b>

정신니 송구호고 알역이 희미헌 중의 이리 궁글 저리 궁글 전전반측
몽블성의 익고 이거시 윈 일이야 <1909,춘향전(사재동87장본),69b>

이리 더듬 저리 더듬 전신을 다 만지며 테굴테굴 궁글면서 두 초상이
느계쭈느<1909,춘향전(사재동87장본),49b>

일이저리 넘놀다? 무른 박씨 더구룩 궁글이니 흥보 안의 반가호야
박씨을 집어들고 <1916,박흥보전(임형택소장본),14b>

업더질락 잡바질락 궁글고 통곡하야 아모리 할 줄 몰으더라. <1926,
권익중실기,188>

마을 한복판에는 거츠른 바람이 오락가락 쓸쓸이 궁글고 잇다금 코를
찌름은, 후련한 산사 내음새. <1934,만무방(김유정),094>

송편 반죽을 떼여다가 손바닥에 놓고 두 손으로 뚱그랴게 궁글린다.
그것은 새알심이같이 되어간다.<1939,봄봄(이기영),174>

여해는 이리 궁글 저리 궁글 목침을 가로 세로 모로 바로 여러 번 고쳐
베어 보았다. <1939,적도(현진건),149>

그 서슬에 쥐들도 놀랐는지 기애의 다리를 스칠 듯이 궁글러와 이부자리
가녀를 미끄러지며 다라났다. <1957,해방춘가는길(강신재),45>

아직도 입을 속에서 몸을 궁그리며 <1929,荒原行(현진건),81>

아, 행여나, 누가 볼는지-가슴이뛰누나, 나의아씨여, 너를부른다/ 마돈나
밤이주는사꿈, 우리가엮는꿈, 사람이 안고 궁그는 목숨의꿈이 다르지안흐니/
<1982,나의 침실로(이상화전집),84>

2) 판소리 사설

판소리 사설에는 한자어와 고사성어가 많고 방언이 반영되어 있다. 이 자
료는 방언은 물론 국어사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대표적인 자
료로는 ‘박이정’ 출판사 출판 자료, ‘국학자료원’ 출판 자료(춘향 예술사 자
료총서) 등이 있다. ‘판소리 사설 전집’(최동현, 2005)에서 입력한 일부 자료
에서 ‘궁글다’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약그릇을 번뜻 들어 방바닥에 부딪치고, 썼다 꺼꾸러져 떼그르르르
궁글러 보고, 가슴을 광항 치고, <박동실 바다 심청가>

토끼는 대그르 궁글며,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오시오?” <유성준
바다 수궁가>

토끼 대그르르르 굴굴어졌는데, <김연수 바다 수궁가>
 그래 내가 뛰고, 굴굴고, 울고 야단을 했지. <정응민 바다 심청가>
 부친은 뛰고 굴굴고 야단이 났는데 <김연수 바다 심청가>
 댁대그르르 굴굴다 아뻐사 낙상하여 <박봉술 바다 적벽가>

3.2. 구비문학 말뭉치11)

1)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행한 『한국구비문학대계』는 총 85권으로 된 책으로 1980년부터 1992년까지 전국 60개 시·군에서 설화, 민요 등을 조사한 책이다. 원 발음을 비교적 충실히 기록한 책으로 당시의 방언을 지역별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현재 21세기 세종계획에서 부분적으로 입력하였다.

『한국구비문학대계』를 검색하면 ‘굴굴다’는 전라 방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강원, 경기, 경북, 충북, 충남에서도 쓰이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놈이 사람을 잡아먹고 변형으로 어디 굴굴면(딩굴면) 호랭이가 돼가지고 이런 전설이 있었는데, <2-1,강원강릉시,580>
 발질루다 그저 막 굴굴러 차지. <2-6,강원횡성군,428p>
 살진암캐를 물어다놓고 굴굴노니다가 <1-8,인천시옹진군,555p>
 손으로 버두면서 ‘아이고 배야’ 허고 거기서 굴굴기 시작헌디, <6-3,전남고흥군편,658p>
 “아이고 저 떡발이 굴굴어 다니면서 유월빼다구 굴굴어 다니면서 저리 굴굴어 댕기요.” <6-6,전남신안군편,54p>
 데글데글 굴굴어 가네. <5-2,전북전주시완주군편,517>
 밀가루단지 가 굴굴으니까 하얀 백사람이 될거 아녀? <4-6,충남공주군,486p>
 발루 탁 차른 모가지가 툭 떨어져 저기 가서 데굴 굴굴어 나갈텐데 요놈을 탁 차까? <3-2,충북청주시청원군편,784p>
 잠꼬대 하면서 끄 하면서 한 바퀴 굴굴었던 말이야. <2-8,강원

11) 구비문학 자료로 『한국구비문학대계』외에 『민중자서전』(뿌리 깊은 나무), 『지역어 조사 보고서』(2005-2012, 국립국어원), 『한국구전설화』(평민사), 『MBC 민요대전』 등이 있다.

영월군,560p>

그 노인네를 갈기니까 테굴테굴 궁굴러서 죽겠다구 웅덩이엘 텨땡 빠졌다
<1-4경기도의정부편,0939>

기양 다 디글디글 궁굴고 야단이어. <6-2,전남함평군편,464p>

해골은 해골내로 궁굴어 다녀. <6-12,전남보성군편,584p>

복이 궁굴어 들어온 절루 궁굴어 들어용 거지. <4-2,충남대덕군편,559p>

그러면서 띠놓으면 띠굴띠굴 궁굴러서 아랫목으로 오구. <3-4,충북
영동군,406p>

3.3. 문학 작품 말뭉치¹²⁾

문학 말뭉치에서는 해당 어휘는 물론 당시에 함께 쓰인 동의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시대별 방언 어휘를 검색할 수 있어 그 변화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현대한국어 용례검색기’를 검색할 수 있다.¹³⁾

물이 분수 없이 늘어 떠내려갔던 게 아니라 자갈이 밀려내려와 물구멍이 좁아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받침들의 밀이 물살에 궁굴러 쓰러졌던 그런 까닭일 게다. <이태준,1992,해방전후>

“고춧물로 낫 씻기고 밤송이로 코 닦고 송곳으로 밀 받치고 바늘방석에 궁글러 모진 풍상 겪었으나 이내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김주영, 1982,객주5>

시장바닥에서 삼십년을 궁그러 다녀도, 그 바닥을 못 벗어난 과부를 부자라고 한다만야, 아 시장천지에 부자 아닌 사람은 씨도 없겠다. <채희윤, 1993,한평 구휼의 안식>

12) 문학작품 말뭉치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말뭉치로 나눌 수 있다. 고전문학 말뭉치에는 고전소설, 신소설, 시조, 민요 등을 구축할 수 있고, 현대문학 말뭉치로는 소설과 시, 수필 등을 구축할 수 있다.

13) SJ-RIKS Corpus(Sejong -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는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세종 형태·의미 분석 코퍼스’를 수정, 보완한 코퍼스로서 최초 구축 당시보다 약 250만 어절이 추가되어 약 1,500만 어절에 달하는 대규모 분석 코퍼스이다.

필자가 구축해서 사용하는 전라방언이 나오는 문학말뭉치를 검색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나의적은손에는 이쌍덩이가/뗏번이나 뇌엿스며/그얼마나 궁글여지는지/물으겟노니- <신석정,손과가슴>

일반 양인(良人)의 붙이라 할지라도 어쩌다 가족을 잃고 저 혼자 떨어져 궁글어 다니다가, <최명희,혼불,1996,4,22>

굼벵이도 궁글 때는 다 그만한 속이 있는 것인디, <송기숙,녹두장군3,1989,189>

그 민심이란 것이 이리 궁글고 저리 궁글고 험서 한 매디씩 맨글어진 것이다." <조정래,아리랑,1995,5,326>

"굼벵이야 궁글 재주나 있제만 자네가 무신 신통술이 있다고." <조정래,아리랑,1995,8,43>

세상 만사가 굴 파는 데는 퇴깡이가 선생이고, 궁그는 데는 굼벵이가 선생인게, 더구나 <송기숙,녹두장군11,1989,205>

3.4. 방언 어휘 말뭉치

1) 각종 방언 사전 자료

최근 지역에서 발간된 방언사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방언사전이 말뭉치로 구축되어 검색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세종계획 사업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입력된 사전들이 사용되고 있다.

궁구라맹기다[㉠] 굴러다니다. 궁구라지다[㉠] 굴러넘어지다. 궁구르다[㉠] 구르다. 궁굴다[㉠] 뒹굴다. 구르다. 궁굴르다[㉠] 굴리다. 궁굴리다[㉠] 굴리다. 궁굴어가다[㉠] 굴러가다. 궁굴어맹기다[㉠] 굴러다니다. 궁굴어지다[㉠] 굴러넘어지다. 궁굴치다[㉠] 굴리다. 궁굴통[㉠] 굴렁쇠. 궁글다[㉠] 뒹굴다. 구르다. 궁글리다[㉠] 굴리다. 궁글어맹기다[㉠] 굴러다니다. 궁글어지다[㉠] 굴러넘어지다. 궁글통[㉠] 굴렁쇠. <주갑동(2004)전라도방언사전>¹⁴⁾

14) 이 사진은 '가락홀테[㉠] 벼훅이.'와 같이 방언 표제어에 대응 표준어를 주로 제시한 사진이다.

2) 한국방언자료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1995)에서 발간한 『한국방언자료집』 1-9에 나오는 예를 제시하기로 한다.

#굴리다 (굴렁쇠를)¹⁵⁾

*궁그린다 <충남>[논산] *궁굴린다 <충남>[대전, 금산] *궁글고 <경남>
[하동, 남해] *궁굴리구 <충북>[청원] *궁글린다 <충북>[보은] *궁구리고
(굴리+고) <경북>[고령] *궁구르고 <전북>[장수] *궁글고 <전북>[남원]
*궁글리구 <전북>[익산, 진안, 무주, 부안, 임실, 순창] *궁글리고 <전남>
[영광, 담양, 광산, 신안, 화순, 나주, 해남, 강진] *궁굴치고 <전남>[장성,
부안] *궁굴리고 <전남>[광양, 영암, 장흥, 보성, 여천, 완도] *궁구리고
<전남>[구례, 광양] *공그리고 <전남>[승주] *궁글고 <전남>[고흥]

3)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사업(2005-2012)

이 조사사업은 구술 발화(1편), 어휘(2편), 음운(3편), 문법(4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최근에 조사된 자료라는 특징이 있다.

32261-0-1 "구르-(轉)" : 궁글게<08충북옥천> 궁글드라, 궁그러서 <05전남
곡성> 궁글드라, 궁그러마 <07전남영광> 궁글드라, 궁그러마 <08전남보성>
궁구러가제, 굴려라(05전북)

3.5. 방언 검색 프로그램

1) 한국 방언 검색 프로그램 자료

국립국어원(2007)에서 만든 ‘한민족언어정보화 통합검색프로그램’에 있는 ‘한국 방언 검색 프로그램’에서 검색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 『한국방언자료집』에는 ‘굴렁쇠’의 방언형으로 다음과 같은 어휘가 보인다.

궁굴레바퀴 <충남>[당진], 궁굴패 <충남>[청양], 궁글쇠 <충남>[대전],
궁굴레미 <충남>[금산].

한편 ‘탈곡기’라 불리는 ‘회전기’의 방언형으로 다음과 같은 어휘가 보인다.

궁글통 <충북>[음성], 궁글통 경기>[화성], 궁글통 <충남>[천안].

궁굴다 <함남>[함흥, 흥남] <함북>[명천, 길주, 경흥, 온성, 회령] <평북>
 궁구러지다 <전남>[화순] *궁구르다 <전남>[화순, 해남] *궁구른다
 <전남> *궁굴다 <전남>[전역]<강원>[강릉] *궁근다 <전남> *궁글르다
 <전남>[여수] *궁기린다 <전남>
 궁굴다 <경남><경북> *궁그리다 <경남>[하동]

4. 말뭉치를 이용한 ‘궁굴다’의 해석과 사전 등재

3장에서 말뭉치를 이용하여 다양한 자료를 검색한 결과, ‘궁굴다’는 전라도에서 많이 쓰이지만 전국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검색되었다. 이제 ‘궁굴다’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표준어로 자리한 ‘뒹굴다’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국어 어휘 역사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색하면, ‘굴다’가 소급하는 최초의 어형은 15세기에 나타나는 ‘그올다, 구올다, 구을다’이다. 16세기는 ‘굴다, 그올다, 구올다, 구을다’, 17세기는 ‘구올다, 구을다’, 18세기는 ‘굴다, 구을다’, 19세기는 ‘굴다, 구을다, 구올다’, 20세기는 ‘굴다, 구을다’가 쓰이고 있다.

轉은 그올씨오 <1459월인석,1,19b>
 제 瓔珞 그치브리고 싸해 그올며 훔 무터 우더니 <1459월인석,10,6b>
 알포몰 춤디 몰호야 구으러 싸해서 닐락 업더디락호야 창지 뷔트리허
 거두 쥐는 듯호야 <1489구급간,2,46a>
 轉 구올 던 <1576유합초,上3a>
 轉 구을 던 <1575석봉천자문(내각문고본),20a>, <1583석봉천자문(박찬성본),
 20a>, <1583석봉천자문(초간본),20a>, <1601이해룡천자문,20a>, <1605신증
 유합(이수륜가판),1b>,<1661천자문(칠장사판),15b>, <1691석봉천자문(신미하
 중간본),20a>, <1696천자문(병자본),15a>, <1700천자문(영장사판),15b>,
 <1735이무실천자문(초간본),16a>, <1792천자문(효간공서),20a>, <1894이무실
 천자문(4판),16a>
 구올 전 (轉) <1664유합(칠장사판),2a>, <16xx유합(선암사판),02a>, <1752

주해천자문(초간본),20a>
 轉 구일 던 <16xx백련초해(홍윤표본),10b>
 轉 구을 던 <1700유합(영장사판),02a>, <1711신증유합(중간본)上:3a>
 轉 구을 전 <1730유합(송광사판),02a>, <1730천자문(송광사판),15a>,
 <17XX유합(호은재장판본),2a>, <17XX천자문(궁내청서릉부분),16a>
 구을니다 轉 구오다 轉 굴다 <1880한불자전,201>
 구을 전 轉 <1895국한회어,37>
 뽕뽕 구을다 回轉 <1895국한회어,85>
 둥굴이다 轉 <1895국한회어,87>
 뒤굴다 轉 <1895국한회어,87>
 덩굴라 輾轉 <1895국한회어,90>
 굴니다 <1897한영자전,293>
 뒤구르다 뒤굴다 <1897한영자전,684>
 轉 구을니다 <18XX광재물보,物性:4b>
 轉 구을 <1908신정천자문,49>
 轉 구를 전 <1916통학경편,39a>

중세국어에서 ‘그올다, 구올다, 구올다’가 쓰였다면 이전의 형태는 ‘*궁을다>구을다’로 재구할 수 있다. 다시 이 변화과정은 ‘*궁글다>*궁을다>구을다’로 재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전국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언 ‘궁글다’는 ‘*궁글다>*궁을다>구을다>굴다’의 변천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가상적으로 재구하는 이유는 중세국어 ‘구올다’가 ‘구올다>궁글다’로 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헌에서는 ‘구올다’류가 계속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국어 ‘뒹굴다’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우리는 다음의 국어사 자료에서 보여주는 ‘뒤구올다’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뜯히서 뒤구올며 흙과 더러운 물을 쥐여 먹으며 칭찬 왈, <17xx윤하정삼문취록권20,8b>

싸히 박기룰 스오번의 연시의 흥독이나 아조 인스틀 바려 소리룰 못흐니 비로소 싸히 노코 뒤구올너 츠기룰 수 업시 흐다가 혼 님 거적을 <17xx윤하정삼문취록권20,12b>

특이하게도 『표준국어대사전』은 ‘뒤굴리다’는 올려놓고 ‘뒤굴다’는 올리지 않고 있다.

뒤:굴다 『동』(자)⇒뒹굴다(방언). <금성 국어 대사전>
뒤-굴리다01 [-굴리어[—어/—여](-굴려), -굴리니] 『동』 【…을】 함부로
마구 굴리다. 『드림통을 {뒤굴리다}/그는 눈알을 사납게
{뒤굴리며} 아이에게 위협했다.』 <표준 국어 대사전>
뒤:-구르다02(움제) (르벗) ->뒹굴다. <우리말 큰사전>

‘한국 방언 검색 프로그램’에서는 ‘뒹굴다’의 방언형으로 ‘뒤굴다’가 전국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뒹굴다 : 뒤:구르다 <전국> 뒤:굴다 <전국> 뒤굴르다 <전국>
뒤굴리다 <전국> 뒤둥구르다 <전남>[신언]

‘뒤굴다, 뒤구르다’는 문학작품과 글에서도 일부 쓰이고 있다.¹⁶⁾

그러나 장시흥 씨는 이렇게 제방구석에 틀어박혀 뒤구르고 있으면서도
그에게 필요한 세상 사회의 돌아가는 뒷이야기는 모두 <1980, 어느사학도의
젊은시절(박태순),169>
무식하게 사는 게 좋고 출세 얹고 밑바닥에 뒤구르고 사는 게 좋다는
그의 말, <1980, 어느사학도의젊은시절(박태순),167>
새벽 3시쯤 일어나니 또 숨이 가쁘고 기침을 하며 머리에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아파서 방에서 이리 뒤굴고 저리 뒤굴고 하며 고향을 질렀다. <이오덕,
1991, 웃음이 터지는 교실>

16) 문학작품과 구비문학에서 ‘뒤궁굴다, 뒤둥굴다’가 쓰이고 있으나 용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무엇을 밋고 니저볼쏘 땡바닥에 뒤궁굴다 죽고나 말것인가 <이기철 편, 이상화
전집, 지구흑점의 노래, 1982, 188>

늪은 용하고 젊은 용, 청룡 황룡이 막 뒤궁그러져 이렇게 인자 하느디, <6-3,
전남고흥군편, 119p>

그때는 용이 한바꾸씩 뒤둥구른께 <6-6, 전남신안군편, 83p>

그리하여 부서진 유리조각을 한데 응켜 공을 빚은 듯이 여러 가지 면과 여러 가지 선과 여러 가지 각도, 여러 가지 나라미가 서로 얽히고, 서로 어긋졌리고 서로 걸리고, 서로 물리어 뒤굴게 되었다. <함석헌,1983,역사와 민족>

일곱살 먹는 거 이제 어떻게 이 조거리(저고리)두 이렇허구 그냥 아랫도리 그냥 훔밭에다 뒤굴구. 일곱살이면 아주 개구장이 아네요? <1-8인천시 웅진군,397p>

그렇다면 ‘똥굴다’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이제까지의 자료를 통해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첫째, ‘궁글다’는 중세국어 ‘구울다’보다 오래된 고형으로 방언에서는 계속 사용되고 있다. 둘째, 문헌에서는 18세기에 ‘뒤굴다’가 쓰이고 있다. 셋째, ‘뒤굴다’는 방언의 ‘궁글다’의 발음에 영향을 받아 ‘똥굴다’가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어형은 ‘똥굴다’이며 ‘똥글다’도 쓰인다. 이 어형은 위의 셋째의 결론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이러한 결론과 추론을 통하여 ‘궁글다’의 올림말에 대한 해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올림말(표제어) : 궁글다
- 2) 발음 : [궁글어]
- 3) 품사 : 동사
- 4) 뜻풀이 : 이리저리 구르다.
- 5) 용례 :

일반 양인(良人)의 붙이라 할지라도 어찌다 가족을 잃고 저 혼자 떨어져 궁글어 다니다가, <최명희,혼불,1996,4,22>

굽벙이도 궁글 때는 다 그만한 속이 있는 것인디, <송기숙,늑두장군3, 1989,189>

- 6) 대응 표준어 : 똥굴다, 뒤굴다, 구르다
- 7) 국어사 정보 :

중세국어에서 ‘그울다, 구울다, 구을다’가 쓰였다면 이전의 형태는 ‘*궁을다>구을다’로 재구할 수 있다. 다시 이 변화과정은 ‘*궁글다>*궁을다>구을다’로 재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전국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언 ‘궁글다’는 ‘*궁글다>*궁을다>구을다>글다’의 변천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8) 사용 지역 : 전라도, 전국
 9) 관련 형태 : 궁글다, 궁굴다, 뒤굴다, 덩굴다, 둥굴다
 10) 보충 설명

‘궁글다’는 중세국어 ‘구을다’보다 오래된 고형으로 방언에서는 계속 사용되고 있다. 문헌에서는 18세기에 ‘뒤굴다’가 쓰이고 있다. ‘뒤굴다’는 방언에서 쓰이는 동의어 ‘궁글다’의 발음에 영향을 받아 ‘똥글다’가 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정보화 시대에 사전을 편찬하는 목적은 어휘에 대한 각종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여 이해하는 데 있을 것이다. 향후 발행하는 모든 전자사전 형식의 국어사전은 분량을 거의 무제한으로 실을 수 있어서 다양한 예문과 각종 정보를 최대한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사전은 어휘와 문법 형태소에 대한 각종 정보를 담고 있는 종합 정보 매체이다. 표준어만 각종 정보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방언도 가능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서 방언도 한국어임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 사용하는 모든 자료를 말뭉치로 구축하여 용례를 검색하고, 용례를 통하여 정밀한 뜻풀이를 행하여야 할 것이다.

‘궁글다’의 예를 통해 보여준 것처럼, 기초적이고 특징적인 방언 표제항에 대하여 가능한 말뭉치를 검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에 각종 정보를 자세히 올리는 방안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2001-2007), 『21세기 세종계획 한민족언어정보화 검색 프로그램』
방언 말뭉치.
- 국립국어원(2005-2012), 『지역어 조사 보고서』 음성전사파일.
- 국립국어원(2007-2012), 『민족생활어 조사 보고서』.
- 이태영(2003ㄱ), 「국어연구와 말뭉치의 활용」, 텍스트언어학 15호, 1-32.
- 이태영(2003ㄴ), 「방언 말뭉치의 전산화와 활용」, 한국어학 21호, 65-104.
- 이태영(2006), 「방언 어휘의 자료 정리와 연구 방법 - 문학작품의 어휘를 중심으로-」, 방언학 4집, 59-84.
- 이태영(2010), 『문학 속의 전라 방언』, 글누림.
- 이태영(2011), 『전라북도 방언 연구』, 역락.
- 주갑동(2004), 『전라도 방언 사전』, 수필과 비평사.
- 최동현·최혜진(2005), 『교주본 심청가』, 판소리 사설 전집 3, 민속원.
- 최동현·최혜진(2005), 『교주본 수궁가』, 판소리 사설 전집 5, 민속원.
- 최동현·최혜진(2005), 『교주본 적벽가』, 판소리 사설 전집 6, 민속원.
- 홍윤표 외(2002), 『한국어와 정보화』, 태학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0-1992), 『한국구비문학대계』 85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1995), 『한국방언자료집』 1-9.
- 21세기 세종계획 국어사 통합 말뭉치 파일.

【Abstracts】

The Korean dictionary and informatization of dialects

Lee Tae-yeong

This study looks at how to deal with the heading dialect in various Korean dictionaries and multiple problems. In order to explain dialects in Korean dictionary, this study looks at why we need the research through the corpus.

Explanation on the dialect entries from the current Korean dictionaries is very poor, and generally it presents a standard language corresponding to the dialect, some to explain the meaning. However, with respect to the dialect heading it will be required to provide information such as corresponding standard language, part of speech, meaning, and related areas, related dialects, examples, a comprehensive explanation.

In the current Korean dictionary, issues of dialects are as follows.

In Korean dictionary dialects does not have a wide range of information, unlike the standard language. The regional differences in dialects heading number is too severe. In Korean dictionary dialects does not consider the balance of the parts of speech. The example of dialect that is presented is very unbalanced in terms of the corpus.

Using the example in the Jeolla dialect 'gunggeulda', it will be described in the need for utilizing corpus. For the study was used Korean history corpus, dialect history corpus, oral literature corpus, literary corpus, dialect vocabulary corpus, dialects search programs. This way to search for a possible corpus for the heading of dialects, and records

detailing the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based on them should be tried.

Key words : korean dictionary, dialect, informatization, corpus,
dialects heading, 'gunggeulda'.

이 논문은 2016년 2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3월 2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3월 2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